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자료제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6227,6269)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2021.8.17.(화)부터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1.8.17.(화) 09:00 ~ 9.16.(목) 18:00 / 31일간

신청대상 재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21-2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의 2차 신청 허용(구제기회 횟수 미차감)
※ 코로나로 인한 미신청을 최소화하고자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을 한시적으로 완화

신청방법

1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접속 후,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로 신청

✓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1가지 준비
*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민간인증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2  **가구원(부모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접속 후,
소득심사를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의 전자서명수단* 1가지 준비
*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민간인증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 》



지원내용

학자금 지원 구간별 연간 지원액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I 유형	520만원				390만원	368만원		120만원	67.5만원
다자녀	520만원				450만원				

※ 1)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 결정

2) 성적, 이수학점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요건 제외)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사람두터워 보다 나은 교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자료제공: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358)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계곡, 강, 바다, 유원시설 등을 찾아 학생들이 수영 등 물놀이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는 물놀이는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물 놀 이 안전수 칙

□ 물놀이 전

-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 식후, 배가 고플 때, 심한 운동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합니다.
- 야외 물놀이를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묶거나 수영 모자를 씩니다.
(※ 물놀이 중에 머리카락이 목에 감길 수 있습니다.)



□ 물놀이 중

- 물에 들어갈 때는 손, 발→다리→얼굴→가슴의 순서로 몸에 물을 적신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 물 깊이를 알고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며,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 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면 즉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 다음의 증상의 있으면 물놀이를 중지합니다.
 -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푸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
 -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
- 위급할 때는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올리고 흔들어 도움을 청합니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 깊은 물로 떠밀거나 물속에 오래 있기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니다.
- 신발이나 물건이 물에 떠내려가도 혼자 건지지 말고,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물놀이 후

- 전신을 맑은 물로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 물기를 잘 닦고, 머리를 완전히 말립니다.
-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은 부상이라도 반드시 치료합니다.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자료제공: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5)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조사기간
2021년 4월~10월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이산가족의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조사원의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에 응답

-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자택으로 전화 또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 ※ 가구 방문 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콜센터

02)2056-3388
오전 9시~오후 9시(월~금)

홈페이지

남북이산가족찾기
<https://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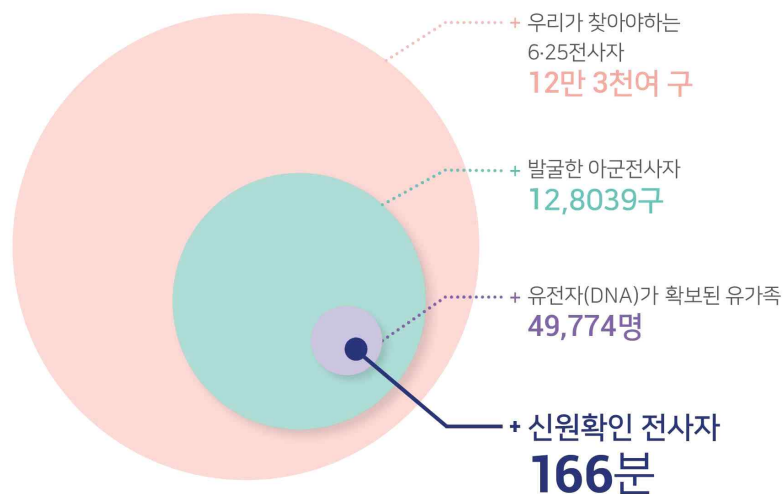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Q. 6·25전쟁이 끝난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전사자의 유해를 찾는건가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여 구의 호국 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가 필요합니다.



발굴된 아군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사자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채취가 절실합니다.

신원 확인 시 **1,000** 만원 포상금 지급
1577- 5625 (오!6·25)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 ·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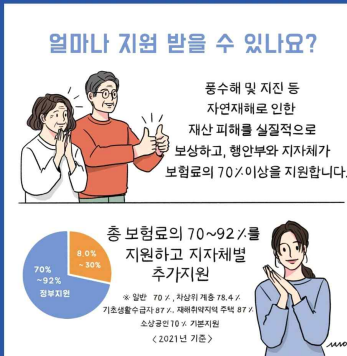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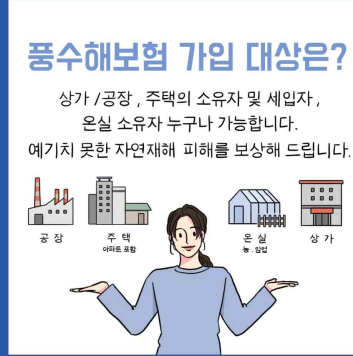


24시간 365일! 「국번없이 ☎1303」
군전화, 공중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든 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사이버 신고/상담은 [국방 헬프콜](#) [검색](#) [Ch](#) [국방헬프콜](#) [+](#)

여름철 재난대비 풍수해보험 홍보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044-205-5355)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지금 바로 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6)

-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m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하세요!



0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02.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0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04.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경신청	변경청구	심사의결	결과통지
신청인은 입증자료 지원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군·구는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장 청구	변경위원회는 6개월 내 심의 후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인용 결정 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이)자리 변경

2021년 8월 국정홍보만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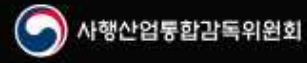
2021년 8월 국정홍보만화
- 마약류 오남용을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나요 -

마약류 오남용을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나요?



불법도박 금지 및 신고 안내

(자료제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과 ☎02-3704-0554)



온라인 올라미! 당신을 노립니다

온라인 도박(금전거래 등)은 불법

순간의 호기심이 미래를 빼앗아 갑니다



불법도박신고센터
(포상금 최대 5천만원)

1855-0112

도박문제 전문 상담
(365일 24시간 운영)

1336

동물등록 자진신고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384)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7.19.~ 9.30.
집중단속 10.01.~10.31.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진신고란?

-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 | |
|--------|-----------------------------------|
| 10일 이내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 |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 |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폭염피해 예방대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21.7.29. 기준

지속되는 폭염!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령농업인 등 대상, 온열질환 예방조치

알림서비스
 ☑ 폭염특보 시 농업인 대상, 온열질환 예방요령 **알림서비스** 제공
* 낮12시~오후5시 작업중지, 농작업 시 충분한 휴식, 물 자주 마시기, 무더위 쉼터 이용, 작업 시 최소 2인 1조로 바shift 대조 등

현장지원
 ☑ 농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현장지원 서비스 강화**

예찰활동
 ☑ 농촌지역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및 드론을 활용한 논 밭 **작업현장 예찰활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생육저하 피해 사전예방 강화

산지점검
 ☑ 폭염 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생육상할 상시 모니터링

안전생산 지원
 ☑ 농작물 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대응 현장기술 컨설팅 지원

수급안정
 ☑ **고령지 배추·무의 수매비율** 및 사과·배의 계약재하 **물량 추가 확보** 추진
 ☑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령지배추는 예비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폐사 등 축산 폭염피해 최소화

축사점검
 ☑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 환풍기, 냉방시설 등 설치·작동 여부 등 지속점검

시설개선
 ☑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 등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우선 지원**
 ☑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축사 냉방기** 등 축산농가 지원

정보제공
 ☑ **축사·가축 관리요령** 사전에 제공
 ☑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실시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폐사 등 축산 폭염피해 최소화

축사점검
 ☑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 환풍기, 냉방시설 등 설치·작동 여부 등 지속점검

시설개선
 ☑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 등 연초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우선 지원**
 ☑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축사 냉방기** 등 축산농가 지원

정보제공
 ☑ **축사·가축 관리요령** 사전에 제공
 ☑ 폭염특보 발령 시 **위험지역 실시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 운영(∼10.15), 폭염피해 농가 지원

재해보험
 ☑ 폭염 피해 시 재해보험의 신속한 손해평가 및 **보험금 우선지급** 등 현장복구 지원

재해복구비
 ☑ 피해 정도에 따라 **축산 농가에는 어린가축 암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 피해복구비 신속 지원
*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제도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6)

**농촌생활권 복원과
완성화를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추진합니다~!**

아아~
알려드립니다~

**농촌협약제도가
무엇인가요?**

농촌협약제도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 365 생활권: 30분내 기초 생활서비스 지원, 60분내 복합 서비스 접근 보장,
5분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 + 계획 수립 (지자체)

협약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적극 이행합니다

협약기간 5년,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조정 가능

1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민간 자본 등을 투자
* 지원 사업별 국비 지방비율: 지역별(50~70%)

농촌협약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자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함께 지원하여 능동적인 참여와 계획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 단위로 반복되던 투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 투자 감소 방지)

**농식품부는 2020년에 선정된 12개* 사군과
이반에(2177)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 이천시, 원주시, 영월군, 영동군, 괴산군, 홍성군,
임실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

협약 사례

임실군
☑ 중심지인 임실읍의 생활SOC시설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
☑ 임실읍에 교육서비스를 확충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상주시
☑ 함창읍-낙동면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 기존 스마트팜 혁신 벨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 활성화 도모

농촌지역 생활권 완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동반자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수지 수질자동측정망 구축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7)

실시간으로 수질을 감시하는 저수지 수질자동측정망 구축

90개소 저수지
(’20 ~ ’21년)

통합수질관리 시스템
(’21년)



‘20년 53개소, ‘21년 37개소 설치 및 시스템 구축 계획

- 총저수량 500만㎥ 이상 대규모 저수지 70개소
- 생활·공업용수 공급 등 오염감시 필요 저수지 20개소



ICT기술을 활용한 수질 모니터링 자동화



전국 주요 저수지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자동 측정하고 상시 감시하고 있어요!

효과 01 실시간 수질 측정 및 정보 제공



효과 02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처 가능



스마트한 저수지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빅데이터전략담당관실 ☎ 044-201-1424)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농식품 분야별 14종 신규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3종, 식품·유통 2종, 축산·방역 5종, 농생명 4종

신규 개방 예정인 14종 데이터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7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료로 개방합니다.

data.mafra.go.kr

※ 실시간 도매시장 경락가격, 안심식당 등 개방 중인 데이터(527종)도 지금 바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신규개방 예정

농업·농촌·식품분야 공공데이터는?

개방시기(예정)
2021년 7월
2021년 9월
2021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3월

신규개방 예정

축산·방역분야 공공데이터는?

개방시기(예정)
2021년 7월
2021년 9월
2021년 1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신규개방 예정

농생명분야 공공데이터는?

개방시기(예정)
2021년 7월
2021년 7월
2021년 7월
개방중

국민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유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습니다.

알고 싶은 농식품분야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data.mafra.go.kr)

8월 제철농산물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 044-201-2272)

「제철」 건강한 8월의 지금 은 모두 옳다」

내일동 위한 정부책임
보다 나은 농식품부+

제철 농산물 정보는
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눈의 비결 당근

✓ 태양의 기운 가득한 당근

태양을 연상시키는 주황 빛깔 채소 당근은 특유의 아삭함과 건강함으로 모든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녹황 채소이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함유되어 눈을 건강하게 하며,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및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력 향상,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리코펜 성분이 풍부하다.



보관법과 당근 레시피

신문지에 싸 후 냉장보관하며, 습기를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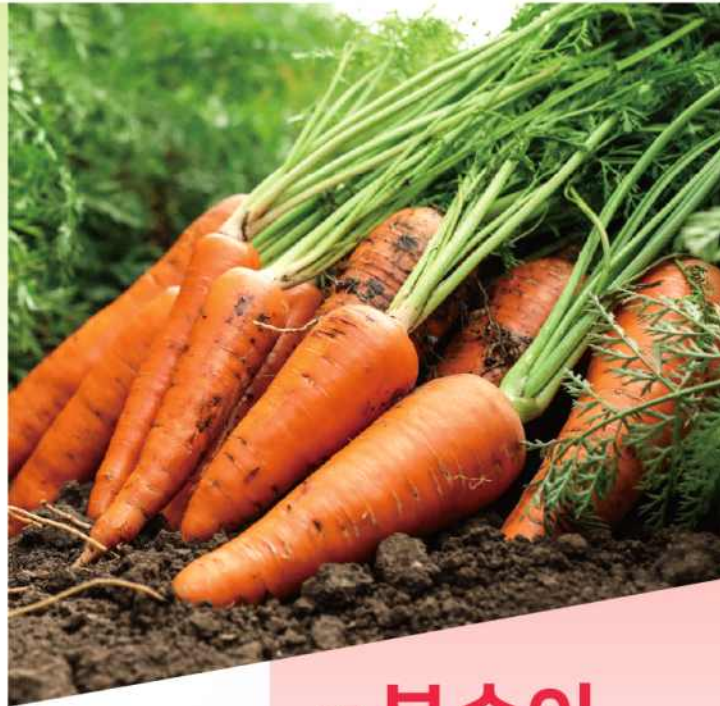
당근라볶



당근주스



당근조림



울긋불긋 복숭아

✓ 피로 회복 복숭아

풍부한 과즙, 달콤한 향기, 아름다운 붉은 빛깔로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복숭아는 과육의 색과 단단함에 따라 크게 백도와 황도로 분류된다.

알칼리성 식품인 복숭아는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돋우며,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 펙틴 등은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와주어 어혈을 풀어준다.



고르는 법과 복숭아 레시피

상처가 없고 색이 선명하며, 털이 매끈하며 향기가 강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복숭아샐러드



복숭아스무디



복숭아파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제 폐지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52)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수급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2021년 1월, 노인·한부모 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전국 약 15만7천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 예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 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 구 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 2] 참조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1년 등유나눔카드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및 사용기간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1년 10월 6일~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online.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바우처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총 금액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위 금액은 20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안내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고지서에서 착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장기기증, 기적이 되다(장기기증 홍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02-2628-3602)

*실제 장기·조직기증 시점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기적이 되다

브레이브걸스가
당신의 기증결심을 응원합니다



제6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홍보대사
브레이브걸스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생명나눔 동참하는 방법



인터넷, 모바일 활용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
www.konos.go.kr 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



FAX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02-2628-3629 로 팩스 전송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02-2628-3602로
전화 후 등록 진행



가까운 등록기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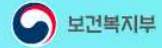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희망의씨앗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044-202-2970)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임상시험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의 중요성

국산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은
백신 주권 확보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 임상시험마다 연령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참여가능여부는 상담센터에서 확인



참여방법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접속 후 임상시험 참여 신청

* 포털주소 <http://covid19.koreaclinicaltrials.org/>

대표 상담번호

1577-7858(전화상담, 임상 정보제공 등)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대표 이메일

15777858@konect.or.kr



참여절차



참여신청



설명 및
서면동의서 작성



사전검사



대상자
선정



임상시험
참여



신청시기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임상시험 참여장소

병원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 관련 기관에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임상시험 주최

국내 백신 개발 중인 제약사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자료제공: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 ☎ 044-201-7499)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아 우리 돼지 함께 지켜요.
- 우리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 도로 등을 지나다가 열린 울타리 출입문이 보이면 꼭 닫아주세요.
- 울타리 출입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멧돼지의 이동을 막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시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등산 등 산림지역 방문 후 옷·신발을 깨끗이 세척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장마철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되어 울타리 밑부분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훼손된 울타리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

- 경기권 : 031-790-2841(한강유역환경청)
- 강원권 : 033-760-6062(원주지방환경청)
- 장마철 24시간 신고전용 : 041-950-5975(국립생태원)

ASF 차단 울타리 「출입문 닫기」 캠페인 “문 닫고, 소독하고, 신고하고”

주민과 출입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차단 울타리 출입 후
출입문을 반드시
닫아 주세요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소독해주세요



훼손(뺏어지거나 구멍난 곳 등)된
울타리는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ASF 차단 울타리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여 아프리카열병(ASF)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중요 시설

반드시 지켜주세요!

- ✓ 울타리가 불편하다고 임의적인 **훼손**은 **NO!**
- ✓ 야생동물 이동 흔적이나 훼손된 곳 발견시 **신고 전화!**

차단 울타리 긴급대응 안내전화

경기·강원권		기타 지역
한강유역환경청 (파주~가평)	031)790-2841	정부민원콜 110 또는 해당지역번호 + 120
원주지방환경청 (춘천~고성)	033)760-6062	

※장마철 24시간 신고전용 041.950.5975



제주공항 도착 항공수하물 배송 대행서비스 실시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6)

-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 도착장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배송대행업체인 (주)짐캐리(문의☎1544-8215)는 국내항공사 6개社(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에어서울)와 제휴하여 배송대행서비스를 시범운영('21.7.26~'22.7.25, 1년) 합니다.

* 시범운영 기간 중 청주·김해공항 등 서비스 대상 (출발)공항 확대 예정

- 이에 따라,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 전일 18시까지 짐배송업체 누리집(www.zimcarry.net 또는 검색포털에서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를 통해 출발 항공편, 운항정보 및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예약하면 됩니다.

* (이용요금 및 결제방법) 요금은 일반 캐리어 1.5만원, 골프백·자전거 등 대형 짐은 2만원이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 아울러, 출발 당일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 모바일로 짐 외부사진을 찍고(정면·측면 등) 짐배송업체 모바일 웹에 올린 후 해당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하물을 맡기면 됩니다.

- 이후, 짐배송업체가 제주공항 보호구역내 수하물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배송하며, 승객은 모바일 웹을 통해 본인 짐의 배송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서비스 이용 절차 ◆ ◆ ◆

이용대상 ○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탑승객

이용방법

○ 짐배송업체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www.zimcarry.net)를 통해 사전 예약

① 출발 당일 공항 도착 → ② 모바일로 짐 사진 촬영(외부 정면·측면 등 3장) 후 올리기 → ③ 짐 스티커(항공사 카운터 비치) 부착 → ④ 짐 맡김 → ⑤ 실시간 짐 배송 위치 확인(모바일) → ⑥ 탑승객이 원하는 시간·목적지(호텔, 골프장 등)에서 수령



웹 예약 절차

The web booking process is shown in five st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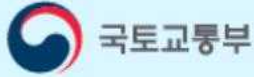
- Step 1: Login and Confirmation.** The user logs in and confirms their booking details, including flight information and baggage.
- Step 2: Confirmation and Completion.** The user confirms the booking and completes the payment process.
- Step 3: Booking Information.** The user views their booking details, including flight information and baggage.
- Step 4: Hotel/Golf Course Booking Information.** The user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ir hotel or golf course destination.
- Step 5: Booking Completion.** The user completes the booking process and receives a confirmation message.

유의사항

- 탑승객 본인의 집에 한해 서비스 이용 가능
- 일정 기간 이후 서비스를 변경·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발생
- 골프백 등 고가품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업체와 사전 합의를 해야 하며, 말기는 경우 모바일로 내·외부 사진 촬영 후 올리기
- 기상악화,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의 취소·변경 가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 안내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4179)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갱신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가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저렴한 비용

1~10만원
이내의 비용



신속한 절차

60일 이내에
조정완료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 해결

변호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서울] 02-3394-9870~3

[경기] 031-902-3573~4

[강원] 033-244-9793~4

[세종] 044-868-8341

[전북] 063-276-8022~3

[경북] 054-275-9771~2

<http://www.reb.or.kr>



피부적외선 체온계, 사용편의성 · 측정시간 등에 차이 있어

- 의료기기 시험규격(온도 정확도, 누설전류)은 모든 제품이 적합 -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국 ☎ 043-880-5745)

측정 일관성, 저·고온환경 동작성능은 모든 제품이 이상 없어요

측정 일관성

제조사별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연속(5회)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어요

저·고온환경 동작성능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했어요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요

사용 편의성

최우수 (우리카롬 RZBP-060, 우아스아메스 BN1400, 우진트인 YT-1)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요

최악

(우리카롬 RZBP-060, 라치코리아 MS103, 우오엔케이(FT90), 우아즈프로브(BC-03), 우이지텍(DT-060), 우테크엔(TCN-10A), 우파트론(PTD-100), 우휴비텍(HFS-1000))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었어요

충격 내구성

최우수 (우아즈프로브 BC-03, 우리카롬 RZBP-060)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고리 부분에 파손이 파손돼 개선을 권고했어요

측정 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요

측정 시간

1회 측정 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1초 이내로 짧음 (우리카롬 RZBP-060, 우아즈프로브 BC-03, 우진트인 YT-1, 우휴비텍 HFS-1000)

5초 이내로 가장 길었음 (우파트론 PTD-100)

무게

최소 9g ~ 최대 126g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요 (배터리를 포함한 제품 무게)

부가기능

사물온도* 측정, 메모리 등 부가기능에서도 제품별 차이가 있어요**

*분류, 목적물 등의 온도 측정 가능
**측정한 체온을 기록·관리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시 주의사항

- ✓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 등을 통해 **의료기기**로 허가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선택**하세요
- ✓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큰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온도를 측정할 경우 **실내에 들어와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한 체온을 측정** 할 수 있어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consumer.go.kr, 舊 행복드림)'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뚫!

(자료제공: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 044-205-7663)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문의처 | 소방관서(대표전화) 원스톱 지원센터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火)에 사용하는 기구

※ 구입방법 : 인터넷 · 대형마트 ·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설치대상

*단독주택(단독 · 다중 ·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즉, 소유주가 1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 즉, 소유주가 여러명

설치기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

사용기한 10년



오작동시 리셋버튼 누르기

배터리 주기적 점검

※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



여름철 산사태! 이것만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산림청 대변인실 ☎ 042-481-4074)



산사태로부터 안전하려면...



집주변의 산사태위험 점검

배수로를 확인하고 짐목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기상 및 산사태 정보 확인

호우·태풍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경보를 확인한다.



대피장소 확인

대피소와 비상연락처를 미리 알아둔다.



구조요청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산사태 발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119로 연락해주세요.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마스크착용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6)



운전 안전띠

접종 마스크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예방접종 전과 후에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는 안전띠 착용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약속, 바다를 9해줘!

(자료제공: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 032-835-2312)

○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 현황

- 전체 선박 사고 원인의 1/10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
- 어망 훼손, 어획물에 섞여 조업 지연 등 어업 생산성을 저감시킴
- 바다동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서식지 훼손으로 바다 생태계 파괴
-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막대한 비용 발생

○ 대국민 해양 환경 캠페인 “바다를 9해줘!” 동참 요청

-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행동요령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함으로써,

①해양 생태계를 보호해

②바다생물과 공존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③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해

궁극적으로, ④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만들고자 함

○ “바다를 9해줘!” 행동요령



바다를 지키기 위한 9가지 약속 바다를 9해줘!

1



일회용 마스크 사용 후
끈을 잘라 휴지통에 버리기

2



담배꽂초 버리지 않기
*담배필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집니다

3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4



커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5



비닐봉지 보다 장바구니 사용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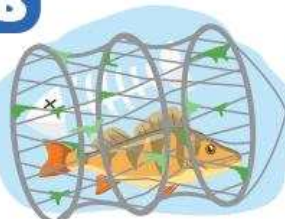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7



야외 활동 후 쓰레기 되가져 오기

8



그물 등 어구류 버리지 않기

9



바닷가에서 불꽃놀이 하지않기
*폭죽 잔해가 바다로 떨어집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아름다운 바다를 지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 애비슨 · 그리어슨 · 마틴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운 의료선교사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올리버 알 애비슨(1860~1956), 로버트 그리어슨(1868~1965), 스탠리 에이치 마틴(1870~1941) 선생을 2021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올리버 알 애비슨, 로버트 그리어슨,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은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가혹하게 민중을 탄압한 일본 총독부에 항의하고 그들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으며 그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지원한 분들이다.

애비슨(Oliver R. Avison)은 1892년 미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서 선교하던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토론토대학을 방문하여 한국선교사 지원을 호소하는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지원하여, 같은 해 6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서 부임하였다. 그는 3·1운동 이후 총독부가 주최한 선교사 회합에서 한국인 차별 철폐,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한국인들의 총독부 통치에 관한 불만을 전달하고 이런 문제를 항의하면서 개선요구를 하였다. 또한 귀국하는 선교총무 암스트롱에게 3·1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비망록을 작성하여 미국 장로회, 감리회 등에 보내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애비슨은 3·1운동의 부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료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경찰의 가택 수색과 환자 이송에 저항하고, 항의하였다.

이후 1934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 명예교장에 추대되었고, 선교사는 은퇴하여 1935년 12월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귀환하였다. 그는 미국으로 귀환해서도 1942~43년 기독교인친한회 재무를 맡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독립운동을 지원할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1956년 미국 플로리다주 피츠버그에서 96세로 별세했다.

그리어슨(Robert Grierson)은 부인과 함께 1898년 9월 7일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9년 2월 함경남도 원산을 중심으로 함경도지역 선교를 담당했다. 그가 세운 진료소는 1916년 제동병원(濟東病院)으로 발전하였다.

그리어슨은 독립운동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동휘(李東輝) 선생이 1908년부터 고향인 함경북도에서 국권회복운동을 하였으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져 이를

피하기 위해 1909년 봄 성진(현 함경북도)의 그리어슨을 찾아와 관할 구역 내 설교자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동휘 선생이 국권회복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를 기꺼이 성서 매서인(賣書人,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1년 후에는 조사(助事, 선교사)로 임명하여 자유롭게 그가 국권회복운동을 하도록 후원하였다.

그는 성진지역 3·1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도왔다. 그는 1919년 3월 7일 저녁 성진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비밀 회합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어 3월 9일 주일에는 그가 담임하던 성진 옥정교회에서 일제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을 격려하였다. 3월 10일 성진 만세시위는 제동병원 앞에서 시작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며 관공서, 경찰서가 있는 시내로 확산되었다. 그러자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일제 군경과 소방대가 출동하여 한국인을 무차별 구타하고 총을 난사하여 부상자가 속출하자 적극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면회하고 사식을 제공하여 이들의 만세운동을 후원하고 지지하였다.

1935년 정년퇴임 후 귀국하여 토론토(Toronto)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965년 98세로 별세했다.

스탠리 마틴(Stanley H. Martin)은 1916년 부인과 함께 캐나다장로회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용정선교지부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가 부임하고 건립한 제창병원(濟昌病院, St. Andrew Hospital)은 30개의 병상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 남녀 입원실과 수술실, X선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용정이 있는 북간도 지역은 국내 만세소식을 듣고 「독립선언 축하회」 형식으로 만세운동을 열기로 했다. 이 「독립선언 축하회」는 1919년 3월 13일 정오 용정에서 개최되었다. 식당에는 대회장인 김영학, 회장 구춘선 장로, 부회장 배형식 목사등 북간도 지역 민족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학의 간도거류조선민족일동 명의의 「독립선언 포고문」 낭독에 이어 유예균, 배형식, 황지영 여사의 연설이 있었고, 만세시위대는 「정의인도」라고 쓴 대형 깃발을 앞세우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내로 돌진했다. 이때 시내 진입을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군이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하여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 시위에서 총에 맞아 기수 박문호를 비롯한 1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치명상을 입은 4명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며, 중상자 18명을 비롯한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들 사상자들은 모두 제창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독립운동에 호의적이었던 병원장 마틴은 사망자의 시체는 병원 지하실에 안치하게 하고, 의료진과 함께 부상자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고, 사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까지 치러 주었다.


이러한 일 후에도 마틴은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의 지지와 협조 속에 제창병원과 그 부속건물들은 자주 독립운동을 모의하기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집회장소와 숙박소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문서들이 등사판으로 인쇄되어 배포되었다. 이런 그의 지원 활동은 일제의 정보보고에도 확인될 만큼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마틴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에 감사하여 간도 대한국민회는 1920년 2월 이를 표창하는 기념패를 제작하여 그에게 수여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병원 간호사와 함께 1920년 10월 말경 일본군의 방화 학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노루바위(장암동) 학살 사건'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조선인 학살인 간도 참변의 실상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1927년까지 제창병원 원장으로 있다가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겸 부속병원 의사로 임명되어 근무지를 서울로 옮겼다. 이곳에서도 흉부외과 과장과 세브란스 결핵병 방지회장을 맡아 한국인 특히 청년층의 고질병인 폐결핵의 퇴치에 힘썼다. 1940년 전운이 감돌자 귀국하였고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Richmond)에서 이듬해인 1941년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들의 공훈을 기려 올리버 알 애비슨 선생에게 195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며, 로버트 그리어슨 선생과 스탠리 에이치 마틴 선생에게는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각각 추서하였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애비슨 선생	그리어슨 선생
	
마틴 선생	

※ 동 내용은 9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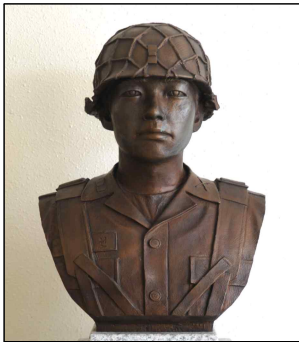
2021년 9월의 6·25전쟁영웅 홍창원 대한민국 육군 중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홍창원 육군 중위(1932.2.3. ~ 1952.9.7.)를 '2021년 9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홍창원 육군 소위(당시 계급)는 수도사단 제26연대 5중대 1소대장으로 참전하여 수도고지 확보를 위한 적 공격에 맞서 전투에서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파상공격을 해오는 적을 확인하고 고지를 사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진내사격을 요청, 아군이 고지부근에 집중포격을 가해 무수히 많은 적을 사살하고 홍소위와 소대원 전원도 장렬히 전사하였다.
- 홍창원 소위는 1951년 6월 육군보병학교 갑종 6기로 입교하여 같은 해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 수도사단 제26연대 5중대 1소대에서 복무하였다.
- 휴전협상이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자 공산군은 협상의 우의를 점하기 위해 강력한 국지 공격을 감행했다. 1952년 9월 6일, 중국군 제35사단은 북한강과 금성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한 요충지 수도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다.
- 수도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수도사단 제26연대 제5중대의 중대장은 홍창원 소위에게 진지를 사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중대장으로부터 진지 사수 명령을 받은 그는 적을 맞아 전투에서 소대원들을 독려하며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했다.

- 그러나, 파상공격을 해오는 적을 맞아 고군분투하던 그는 진지사수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긴급히 진내사격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아군은 5분여 동안 진내사격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적을 사살하였으나, 홍소위를 비롯한 1소대원들 전원도 최후까지 분전하며 장렬히 전사하였다.
- 홍창원 소위는 이러한 공로로 1952년 10월 31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1954년 10월 25일 화랑무공훈장과 함께 육군 중위로 1계급 특진에 추서되었다.



홍창원 대한민국 육군 중위

(1932.2.3.~1952.9.7.)

상훈 : 충무무공훈장(1952.10.31.)

화랑무공훈장(1954.10.25.)

※ 동 내용은 9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의 현충인물 ‘오진석 경감’ 선정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 042-820-7065)

- 국립대전현충원은 2021년 9월의 현충인물로 오진석 경감을 선정했다.
- 오진석 경감은 1989년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속초, 평택, 인천해경서 등 대한민국 해양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015년 8월 새벽 오진석 경감은 인천해경서 소속 경비함(특수구난 9호정)에서 응급환자 구조를 위해 긴급 출항했다. 항해 중 영종도 앞 해상에서 선박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 오진석 경감은 본인도 부상을 입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동료들을 먼저 병원에 보내고, 사고 경비정을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시킨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몸 상태가 괜찮은지’ 묻자 ‘내 걱정은 말라’, ‘다른 직원들과 함정은 괜찮은가’라며 동료들과 본인의 임무만을 생각하였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순직하였다.
-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고귀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국립대전현충원 경찰1묘역에 안장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있다.



故 오진석 경감



묘소사진

(경찰1묘역-502-1013호)

※ 동 내용은 9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9월의 호국인물 이봉출 해군중장

(자료제공: 전략기획부 기획홍보팀 ☎ 02-709-3104)

전쟁기념관은 9월의 호국인물로 이봉출 해군 중장을 선정하였다.

이봉출 중장은 1925년 1월 10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1940년 일본 후쿠오카[福岡]현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광복을 맞아 1946년 2월, 우리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의 신병 1기로 입대하였다. 1948년 9월 해군소위로 임관한 그는 이듬해 4월 해병대의 창설을 맞아 12월 해병대로 전과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해병대 제3중대장이었던 이봉출 대위(당시)는 해병대의 첫 전투인 7월 장항·군산·이리지구 전투, 낙동강 방어선 최서부 지역을 지킨 8월 진동리지구 전투와 통영상륙작전, 그리고 9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탈환작전 등 주요 작전에 참가하였다. 특히 9월 22~23일 연희고지(現 궁동공원)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북한군의 마지막 서울 방어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전공을 세웠다. 이듬해인 1951년 1월에는 김포 일대를 방어하는 독립 제5대대, 1952년 11월에는 백령·연평도를 방어하는 서해부대를 지휘하여 서울의 해상관문을 지키는 해병대의 전통을 정착시켰다.

1965년 9월, 이봉출 준장(당시)은 국군 최초의 해외파병 전투부대로서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의 초대 여단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5개월 동안 캄란만 일대를 안정화하고, 현지 농촌에 대한 보호와 재건작전을 지휘하였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두 전장에서 지휘관으로 활약한 그는 1973년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중장으로 예편하였고, 이후 대한알루미늄 사장·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봉출 중장은 6·25전쟁의 전공으로 을지무공훈장과 미국 공로훈장(Legion of Merit)을, 베트남전쟁에서의 전공으로 을지·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1992년 12월 5일, 향년 67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으며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되었다.

※ 동 내용은 9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1 이봉출 장군 존영

